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6월 10일 금요일 (음 5월 6일) 제157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정세균 20대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

더민주 의원총회에서 71표로 문희상 등 누르고 당선

부의장에 새누리 심재철 국민의당 박주선 선출

도내 정치권 한목소리 환영

정세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로)가 제20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관련기사 2면>

정 신임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총 287표 중 274표를 얻어 당선됐다.

앞서 정 신임의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더민주 의원총회에서 총 121표 중 71표를 얻어 문희상(35표), 박병석(9표), 이석현(6표) 의원을 누르고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반면에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익산)은 여성최초 국회의장직에 도전했지만 어렵게 탈락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반기 부의장으로 박주선 의원을 선출했다.

새누리당도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 동안읍)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정 신임의장은 이날 당선소감을 통해 "많은 의원들이 온건하다 평가하는데 20대 국회에서는 온건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운영 포부를 밝혔다.

정 신임의장은 이어 "잘할 때는 성의를 잘못할 때는 매서운 질책을 해주길 바란다. 초심을 잃지 않고 의장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된 정세균(가운데) 의원과 부의장에 선출된 새누리당 심재철(왼쪽),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 앞에서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국회운영을 통해 민주주의 위기,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신임의장은 "정부여당을 심판하고 산업경제 전반에 만연한 위기정후를, 점점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박근혜 정권의 레임덕, 정권위기가 국가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하는 의회의 역할과 책임 등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이번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다운 국회, 국

민의 국회,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미래를 준비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회와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통해 그 신뢰가 더민주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도내 정치권은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자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오랜만에

야당 출신이자 도내 출신의 국회의장이 선출된 것을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정세균 의장은 여소야대와 다당제 아래에서 (국회의장에게) 부여된 막중한 소임에 온 힘을 다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도 논평에서 "정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무너진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정세균 의장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국회의원 겸직 더 까다로워진다

사무처, '공익목적 명예직' 범위 제한

20대 국회 들어서는 국회의원의 겸직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국회 윤리심사지문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겸직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국회법 일부를 엄격하게 해석한 '20대 국회의원 겸직 금지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새로 제시된 기준은 기존 국회법 29조에 명시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의원 겸직의 가능 직위를 대폭 축소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오는 30일까지 새 기준에 따르면 의원 겸직이 가능한 '공익목적의 명예직'은

단체의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단체장, 단체 운영에 직접 관여가 불가능한 직에만 해당한다. 이와 동시에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직이어야만 겸직이 가능하다.

19대 국회에서는 ▲단체장 ▲부회장 ▲부총재 ▲부단체장 등을 제외한 모든 직위에서는 겸직이 가능했지만 20대 국회 들어서는 모든 직위에서 겸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윤리심사지문위의 설명이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오는 30일까지 국회의원의 겸직 사례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다. /이성주 기자

누리과정 예산문제 놓고

'성난' 어린이집연합회 김 교육감과 물리적 충돌

도의회 정례회 후... 몸싸움 크게 벌어져 일부 부상

전북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가 밝혔다.

연합회는 누리과정(만 3~5세 어린이 무상보육) 예산 문제와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9일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부교육감·도 교육청 간부들은 전북도의회 제333회 정례회에 참석했다.

정례회가 끝난 뒤 김 교육감 일행은 도의회와 도청 청사가 연결돼 있는 3층 구름다리로 향했다.

이는 도의회 1층 입구 쪽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며 전북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 등이 있기 때문에 도청을 통해 나가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김 교육감을 쫓아온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 등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몸싸움이 다소 격하게 벌어지면서 도청 사무부 유리창이 깨졌고, 일부는 부상을 입는 등 아수라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 2명 등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부

교육감도 할과상 등을 입어 병원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경우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관련 예산 편성을 편성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고민형 기자

장기미집행 시설 시민위원 모집

전주시가 해제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운영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다듬마당'의 시민위원을 오는 20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전주시에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남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모집인원은 10명 내외로,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지원서를 작성해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전북 한은 화폐수급업무 재개를"

전주 탄소업체들 "산업 클러스터 조성 따른 자금수급 필요"

역본부에 이어 추가로 인천본부와 강원본부의 화폐수급업무를 재개한 것과 달리 전북본부를 대상에서 배제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최근 화폐수급업무가 재개된 인천본부의 경우 화폐수송 거리가 경기본부(수원)와 본부(서울)까지 약

40~50km인 반면, 전북본부는 광주전남본부와 대전충남본부까지의 거리가 약 80~100km"라며 "화폐 수송에 따른 비용 발생과 위험부담을 경감하기 위

해서는 이유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시는 금융산업 특화도시

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련 금융기관의 집적화를 위한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라며 "탄소산업 클러스터의 조성에 따른 원활한 자금수급 필요 등 전북지역 화폐수급업무의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열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입주기업협의회장은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 수급업무 재개는 도내 금융기관 및 나아가서는 도민들의 불편해소와 자존감이 달린 문제"라며 "호남 내 균형발전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매일 INDEX

3면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의

5면 전주시민의 날 전주정신 선포

6면 주거비 높은 일부 민간 임대아파트

14면 공무원교육원-민속국악원 협약 체결

이래서 다릅니다

- ✓ 전국유일 홍삼특구, 홍삼명인의 고장!
- ✓ 100% 진안홍삼! 진안군수 품질인증
- ✓ 국가지정 홍삼연구소의 성분검증!
- ✓ 2016 소비자 선정 최고 브랜드 대상
- ✓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www.jinansam.com 063-433-8398 남한 유일의 진안고원